

무주군, 외국인 유학생 손짓

전주대와 유학생 유치로 인구소멸 위기 대응 위한 지역활력 세미나 개최

무주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에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 17일과 18일에는 무주반디상상실에서 전주대학교와 함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역 활력 토론회(세미나)'를 가졌다. 이 자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유학 후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지역에서 취업·정주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등 관련 부서 공직자들과 전대성 전주대 교수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함께 했다.

첫날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 전대성 교수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덧붙여 "무주는 덕유산과 무주반디 불축제, 무주산골영화제 등의 자원이 우수한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 특히, 태권도원을 찾는 외국인 방문이 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정책 발굴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외국인 학생들이 취업·정주할 수 있는 여건 또한 충분한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뒷받침된다면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훈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과장은 '내일도 올만 한가, 오늘도 살만 한가'라는 내용으로 관광객과 정주 인구 입장에서 각각 무주지역의 매력과 가치, 환경을 짚어 관심을 모았다.

이동훈 과장은 "정주 인구 만족도가



무주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에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 17일과 18일에는 무주반디상상실에서 전주대학교와 함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역 활력 토론회(세미나)'를 가졌다.

높아야 관광객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무주군은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 숲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 △무주군 지역 특성을 비롯한 △관광산업과 체류인구, △체류인구가 증가하는 지표, △마을과 공동체 의식, △생활인구의 선행사례, △전반 관광객과 고항사람기부제, △무주의 가치와 노력, △인구구조변화와 대응 방향 등을 공유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시간에는 서재호 부경대 교수를 비롯한, 지은석 전북대 교수, 윤규근 서울대 조교수 등 행정, 건설환경, 국가정책, 법, 행정복지 부

야 전문가 13명이 '외국인 유학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둘째 날에는 태권도원 등 지역 명소 탐방의 시간을 가졌다.

서재영 부군수는 "우리가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를 당당히 넘어서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잠시 머물고 떠나는 존재가 아닌 함께 지역과 함께 성장할 인적자원으로 인식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무주군은 태권도원 뿐만 아니라 설립을 앞둔 국제태권도 사관학교(태권도종합수련센터)와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등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 만큼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내외 경제인에 장수 홍보

장수군,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서 홍보 부스 운영

장수군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 경제단체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전세계 한국인 기업 관계자 3,000여 명이 참여해 상생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국제 비즈니스의 장이다.

군은 홍보 부스에서 장수군 농공단지 대표기업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기업은 △도깨비김치(김치), △동방제유(기름), △피코바이오(화장품), △천본(잡채), △미성(옹기) 5개 소이다. 군은 장수군의 관광자원과 고항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서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사과를 소개해 국내



외 경제인들에게 장수사과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는 기업들이 세계 수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며 "국내외 경제인들에게 장수군과 특산품을 소개하고, 해외 바이어들과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회 참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설천면 지사협, 지역사회 위한 특화사업 눈길

무주군 설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전상호, 공공위원장 이지영, 이화 설천면 지사협) 활동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올해는 반기(6월과 10월)마다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초등학교 입학생 가족사진 촬영 지원(10가구)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독거가구 건강음료 배달 사업(12명)은 특화사업으로 완료했다.

이외에도 청소년 학업 집중력 저하 예방을 위한 시력 교정용 안경 제작비 지원 사업(5명)도 추진하고 있다.

복지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 자원을 찾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위원들의 적극적인 홍보로 '착한가게' 2곳(디앤이건설, 무주향)과 '착한가정' 3곳을 발굴했으며 제33회 설천면



민의 날에는 기관·사회단체와 주민들이 기부한 의류, 잡화 등(새 제품 & 중고 제품)을 모아 베품시장(플리마켓)을 운영·판매했다.

이달 17일에는 혼자서 투병(백혈병)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80대 어르신 가구를 찾아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곳곳에 쌓인 먼지와 버려진 털을 털어내는 등 집 내외부를 청소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소상공인 판로 확대 돕는다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무주군이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달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으로 2023년도 매출액이 5억 원 이하인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군은 신청자 중 2년 이내에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매출액, 거주지 등을 우선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으로 △검색어 입력 시 업체 광고가 노출되는 핵심어(키워드) 광고를 비롯한 △누리망(인타넷) 안내 표지판(배너) 광고, △페이스트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소셜마케팅, △오픈마켓(육선, 지마켓, 11번가 등), △매달의 민족, 요기요, 직방, 다방 등의 중개거래처(플랫폼) 활용 비용(최대 7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정성희 과장은 "무주지역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판로를 찾는 데 기여하고 소득 창출이라는 결실을 통해 행복한 군민을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상권활성화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선도한다는 방침으로

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10억여 원을 투입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사업에는 온라인마케팅 지원 외에도 △특례보증 사업(최대 3천만 원 융자, 5% 이하 지원)과 △카드수수료 지원(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 △노란우산공제 지원(신규 가입자에게 매월 부금 1만원 씩 최대 12만 원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소상공인안정자금으로는 △화재보험료 지원(소상공인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 카드수수료 추가지원(기존 카드수수료 30만 원+20만 원 추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한다.

무주읍에 거주하는 김 모 씨(52세, 상인)는 "영세한 상인들에게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이번 기회에 온라인마케팅도 도전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표창원 프로파일러 초청 '스타강사 마이학당' 성료

진안군은 지난 22일 오후 군청 강당에서 프로파일러 표창원 씨를 강사로 초청해 스타강사 마이학당 강연을 추진했다.

이번 강연은 군민 180여명을 사전에 선착순으로 모집해 초청했으며 '인간 심리 이해를 통한 행복 찾기, 정당한 폭력이 있을까?'를 주제로 행복한 삶을 위해 인간의 생각과 행동 기저에 작동하는 동기로서 쾌감과 분노를 이해하고 조절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표창원 강사는 강의에서 "감정이 조절되지 않았을 때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삶과 연결될 수 있다"며 우리가 몰랐던 행복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며 청중들의 관심을 모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진안로컬푸드 생산자 농가교육 진행

진안군은 23일 로컬푸드 신규 참여 농가와 기존 납품 농가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진안로컬푸드 생산자교육을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실시했다.

진안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이날 교육은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의 이해, △농산물 안전성 확보(진류농약검사), △로컬푸드직매장 납품 방법 및 유의 사항 안내, △의견교환 및 소통시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진안군은 지난 2019년 점주시 호성동에 개장한 진안로컬푸드 직매장과 지역농산물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군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9월 진안을 소재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조성하며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문화원 창립 30주년 기념 작품전 개최

장수군은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3일간 한누리전당 전시실에서 장수문화원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학교·문화예술진흥 작품전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장수문화원은 1994년 향토문화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서예, 도자기 공예, 천연염색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계발을 통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마련했으며 현재는 문화학교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학교 강좌는 민화그리기, 서각, 한국무용, 시극단, 음식장작, 스토리텔링, 인문학 강좌 등 여러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전시, 공연, 다큐멘터리 제작, 책발간 등 다양한 창작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예술인들이 재능을 펼치는 토대가 되고 있다.

이번 작품전에는 문화학교 민화반, 서각반의 작품과 문화예술진흥사업에서 선정된 장수 핸드메이드스토리, 한국사진작가 협회 장수지부, 전북가이론화원, 김여울, 김명희, 고강영, 이수연, 이재성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